

“인쇄 산업의 주역이 되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

저는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일본 인쇄선진기술 견학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3명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1학년 대표로 참여하게 된 저는 2학기 초부터 들뜬 마음으로 기능 및 학과 공부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을 가는 10월보다 2개월 전인 8월부터 여권을 만들기 위해 구청도 몇

번 다녀야했고 방학 중에도 학교를 가끔 나와야 할 정도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쳐 일본을 가게 되는 것은 분명 놀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발달된 인쇄업을 대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돛판인쇄(주)의 생산공장인 칸나베 돛판 인쇄사의 견학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공고 학생들과 동행했는데, 서울공고도 우리와 같은 9명이었고 선생님도 서울북공고와 같이 한 분씩 동행하셨습니다. 4박5일간의 일정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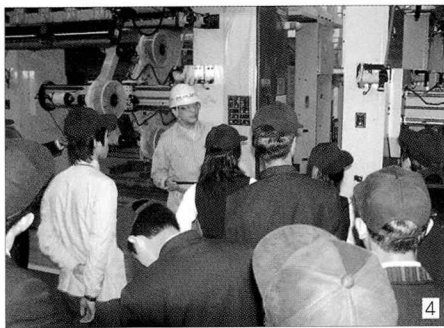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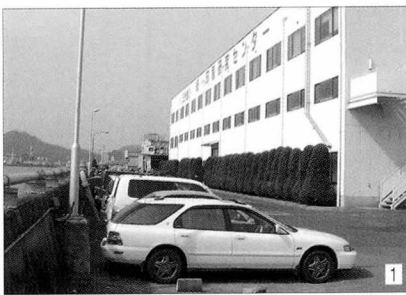
10월24일, 제 인생의 첫 비행기이자 첫 해외여행 길은 오후 5시50분발 OZ162 히로시마행 비행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속에서 우리나라 건물이 손톱만큼 조그맣게 보일 때, ‘내가 지금 정말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고 하늘에서 본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작는데 ‘나’ 라는 존재는 얼마

나 작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7시10분, 우리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의 냄새를 처음 맡는 순간에는 한국과 별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의 질서 있는 모습들이나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모습 등 일본의 장점이 눈에 들어왔고, 그 때부터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일본 특유의 냄새가 제 코에 와 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첫날밤을 보낼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라면이 유명하다고 해서 조금은 특이한 라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는 다르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많아 우리는 늦게까지 저녁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쓰비시중공업 회사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념촬영을 하였고 강당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회사 설명도 듣고, 연수에 같이 참가한 친구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쇄와



1~3. 미쓰비시 중공업 외부전경 4~5. 연수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내부를 견학하고 있다.



6. 미쓰비시중공업 임원진과 연수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7. 타이어를 부착시킨 전차를 제작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을 견학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한 판의 종류나 인쇄의 기본 색이 4가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함께 할 친구들과 함께 인쇄 산업 전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1시 쯤 미쓰비시 공장 내부를 견학했습니다. 공장에서는 1시간에 1만6천장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를 봤는데 그 속도와 발전된 기술에 압도되어, 한동안 우리나라도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주역이 되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쓰비시사에서 만든 타이어를 부착시킨 전차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 수업시간에 말로만 들었던 건물 4층 크기의 윤전기와 엄청 긴 매엽인쇄기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미쓰비시사가 인쇄산업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 알게 되었고, 인쇄산업의 직업과 일들이 '미래가 보이는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쇄산업으로 장래를 선택한 저의 결정이 탁월했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우리는 호텔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미쓰비시사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환영회에 참석하여 게임을 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우리가 아침에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26일 오전, 맛있는 호텔음식을 먹고-dot판인쇄(주)의 생산공장인 칸나베-dot판인

쇄사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칸나베-dot판인쇄사의 역사와 소개 등을 듣고 감사패도 전달하며 칸나베-dot판인쇄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 소개가 끝난 후, 우리는 직접 칸나베-dot판인쇄사의 인쇄관련 기계들과 주문한 인쇄물을 처음 PS판 포장부터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견학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인쇄산업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저는 칸나베-dot판인쇄사의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냐고 질문하였고, 30대를 기준으로 25~30만엔 정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어서 인쇄산업이 시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칸나베-dot판인쇄사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설립된 지 16년이나 된 회사가 새 건물처럼 깨끗했는데,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일본의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점심을 먹고 예전 일본 에도시대에 파견됐던 한국의 통신사들이 묵었던 방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사람들은 청결했고, 친절했으며, 모든 일에 소홀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7일, 호텔에서 출발해 꿈의 섬 미야지

마로 향했습니다. 미야지마에서는 사슴들이 거리를 활보했으며 수학여행 시즌이라 그런지 일본학생들도 많았고 외국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미야지마 견학 후 점심을 먹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화 기념자료관에서는 원폭 당시의 현장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때 원폭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평화 기념자료관 견학 후 우리는 미하라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미하라 온천에서 온천욕도 하였으며 온천욕이 끝난 후에는 송별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별회에서 우리는 우리 인쇄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했으며 이렇게 많은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미쓰비시사와 서울인쇄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히로시마를 뒤로 하며 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와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 인쇄 산업의 주역이 되어 일본 인쇄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미쓰비시사와 서울인쇄협동조합 이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호 · 서울북공고 1학년〉